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 “부동산 문제 해결 사례 보여주겠다”

역사·인문학적 공약 설명

“유엔 본부 유치해 일자리 만들 것”  
총학, 기숙사 정책 제안서 전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가 지난 17일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서울총학생회(서울총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송영길 후보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됐다.

이재환(문과대 중문20) 씨는 “광화문 재구성 사업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시위 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냐”고 질문했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장인 광화문을 관리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 “질서 있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주도 행정과 주민 자치의 복합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들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후보는 “역사상 5대 궁은 항상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한양의 철학적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견해를 듣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집무실 이전은 미신 때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지적했다.

젠더 이슈에는 해결책 제시보다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대응했다. 이재환(문과대 불문18) 씨는 “성별에 따른 지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이 있냐”고 질문했다. 송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배려 정책에 집중



송영길 후보는 “유엔 본부를 유치하면 마이스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 말했다.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발생하며 비판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윤 정부도 현재 ‘윤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해 사병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을 던졌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이족부가 하는 일을 다른 부서로 옮긴다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도 코우키(伊藤 晃輝, 정경대 정외22)가 서울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대비 계획을 묻

자 송 후보는 장충단 공원 복원 공약으로 답했다. 그는 “장충단은 명성황후를 지키다 순국한 충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부 훼손된 장소”라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복원 공약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코우키에게 “일본에서 왔으니 장충단과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보면 좋겠다”는 말도 건넸다.

송 후보는 출마 목표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

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있냐”는 김대환(정경대 정외22) 씨의 질문에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지 못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고 답했다. 이어 분양가의 10%가량만 지불하면 10년간 3%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되면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엔 제5본부 유치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관련 질문이 제기되자 송 후보는 “세계 9위 수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만 유엔기구 유치율은 매우 저조하다”며 공약을 세운 계기를 밝혔다. 또한 유엔 제5본부가 서울에 유치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유엔 본부 관련 일자리 2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후보가 MICE(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떠들었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유엔 본부를 유치하면 마이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에는 아직 유엔 본부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새로운 인류사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제5본부가 충분히 신설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도 강조했다.

서울총학은 학생들이 의견을 수합해 본교 기숙사 신축 문제를 제기했다. 김창희 중앙집행위원장은 “지역 주민, 원룸 업자, 학생들의 요구가 상충하는 문제를 조절할 방안이 있냐”고 서울총학의 대표질문을 전했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23만 호 주택을 재건축해 그중 30% 이상을 세대 분리형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중년층은 빈 자녀 방을 임대해 수익을 얻고 청년들은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토크콘서트는 서울총학이 준비한 대학 기숙사 관련 정책 제안서를 송 후보에게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박영준 제8회지방선거대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을 때 기숙사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본교 소유 개운산 부지 기숙사 신축 허가와 서울시 대학 연합 공공 기숙사 건립, 청년임대주택 확충 요구 등이 포함됐다.

글 | 정성준 기자 chocopie@  
사진 | 문원준 기자 mondlicht@

세종캠퍼스 축제 ‘다시 찾은 봄’

## 봄바람 휘날리며 다시 찾아온 축제



가수 김나영 씨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사를 즐겼다.



다양한 푸드트럭은 학생들에게 볼거리 뿐 아니라 먹거리도 제공했다.

다양한 부스와 푸드트럭 준비돼  
학생이 직접 만들고 즐긴 축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세종총학생회(회장=현진섭, 세종총학)가 주최한 ‘다시 찾은 봄’ 축제가 지난 19일 세종캠 동문 옆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과대, 동아리, 세종총학 부스와 푸드트럭으로 구성됐다. 오후에는 소모임과 동아리의 공연, ‘나의 번호를 누르고’로 유명한 가수 김나영 씨의 무대가 준비됐다. 현진섭 세종총학생회장은 “기존 축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응원제나 대중제 분위기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맛보고 즐기고 다채로운 경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축제는 전면 오픈 라인으로 진행됐다. 동문 옆 테니스장에는 과학기술대(과기대), 문화스포츠대(문스대) 공공정책대(공정대), 문화창의학부, 클로셋(kloset), 흥랑, CCC, 고농회의 부스가 마련됐다. 문스대는 총 3개의 부스를 진행해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 물병 세우기, 병뚜껑 선에 맞추기 게임 등을 진행하며 순위별 상품을 증정했다. 포스트잇

에 전화번호를 적어 새로운 친목을 도모하는 ‘문스시그널’도 열어 이색 이벤트를 진행했다. 정구원(글로벌대 영미학18) 씨는 “오랜만에 학교 축제를 열어 봄 기분이 나는 것 같다”며 “다양한 부스가 열려서 더욱 재미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대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카라카라 부스를 운영했다. 박종홍(과기대 환경시스템22) 씨는 “카라카라가 예쁘게 잘 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물총 싸움 부스에서 학생들은 서로 물총을 쏘기도 했다.

부스 건너편에는 푸드트럭이 학생들을 반겼다. 와플, 초밥 등 다양한 푸드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다. 와플을 파는 김모 씨는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축제에 참여했다”며 “많은 학생들이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수놓은 축제의 장

오후가 되자 학생 공연이 시작됐다. 진행은 허정재 세종부총학생회장과 유혜주(과기대 자유공학22) 씨가 진행했다. DRM, JSA, B4Z 등 음악 소모임이 무대의 시작을 열었다. 이후 뮤지컬 중앙동아리 KASTING(캐스팅)이 위대한 쇼맨 OST로 무대의 흥을 돋웠다. 댄스 동아리인 UDF의 공연은 학생들

의 뜨거운 환호성을 자아냈다. 무단외박 회장 박성빈(문스대 문예창작21) 씨는 “집에도 안 들어가며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으니 학생들이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공연을 시작했다. 이후 공정대의 락밴드 BBP, 국제스포츠펠부의 댄스동아리 흑호, 중앙동아리 세미클래식, 콘체르토의 공연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공연이 끝난 후 가수 김나영 씨의 무대가 진행됐다. 김나영 씨는 공연 중 학생들에게 곡을 신청 받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통했다. 축제의 끝은 호의응원단 루터스가 마무리했다. 루터스 총기획 이준석(대학원-전자정보공학) 씨는 “3주 동안 매일 훈련했지만 학생들이 잘 응호해줘서 다들 즐거웠다”고 전했다.

‘다시 찾은 봄’의 취지에 맞는 축제였지만, 홍보 등에서는 아쉬움도 남았다. 이유성(글로벌대 디지털경영22) 씨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은 알지만 홍보가 너무 늦어졌다”며 “각 단과대별 채팅방에 올라온 공지에도 특별 게스트나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글 | 오찬영 기자 luncheon@  
취재 | 최민서 수습기자 press@  
사진 | 김태윤 수습기자 press@

본교 세종 국어문화원

## ‘나는 세종대왕 지식인 대회’ 개최

본교 세종 국어문화원(원장=이창민 교수)이 지난 15일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나는 세종대왕 지식인 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문화원연합회 등의 후원을 받아 열린 행사는 세종대왕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우리 말글에 대한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글로벌대 한국학전공) 교수는 한국학전공 소속 재학생 10명과 행사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퀴즈 대회를 진행했다. 퀴즈는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몇 대 왕일까?’, ‘훈민정음

을 ‘한글’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와 같이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상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세종 국어문화원은 국어 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세종 국어문화원에서 주최한 첫 공식행사다. 이창민 국어문화원장은 “5월 15일은 세종대왕이 나신 날이자 스승의 날”이라며 “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을 겨레의 스승으로 기리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수현 수습기자 press@

## 안암병원-안암역 잇는 에스컬레이터 개통



에스컬레이터 개통으로 방문객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아졌다.

본교 안암병원(원장=윤을식 교수)이 지하철 6호선 안암역 1번 출구를 잇는 에스컬레이터를 개통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안암역 1번 출구 앞 내원객 주차장 자리에 설치됐다. 8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해 지난 17일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9일부터 시행한 시범 운행에서 접근성과 환자 편의의 증가했다는 평을 받았다.

윤을식 원장은 “환자와 보호자를 비롯해 병원을 방문한 모든 이들을 위해 에스컬레

이터를 마련했다”며 “안암병원이 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힐링을 제공하는 건강파트너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암병원은 에스컬레이터 개통을 기념해 환자를 위한 음악회 및 무료 커피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문고와 협업해 도서류와 문구 판매 수익 일부를 환자에게 기부하는 행사도 열 예정이다.

글 | 김민선 기자 sun@  
사진 | 문원준 기자 mondlicht@